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1

어린양의 피와

유월절

(출애굽기 10:8~12:51)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끔찍한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파라오의 고집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죠.

**“좋다, 너희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다만, 남자들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두 사람도 갈 수 있으니 된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모세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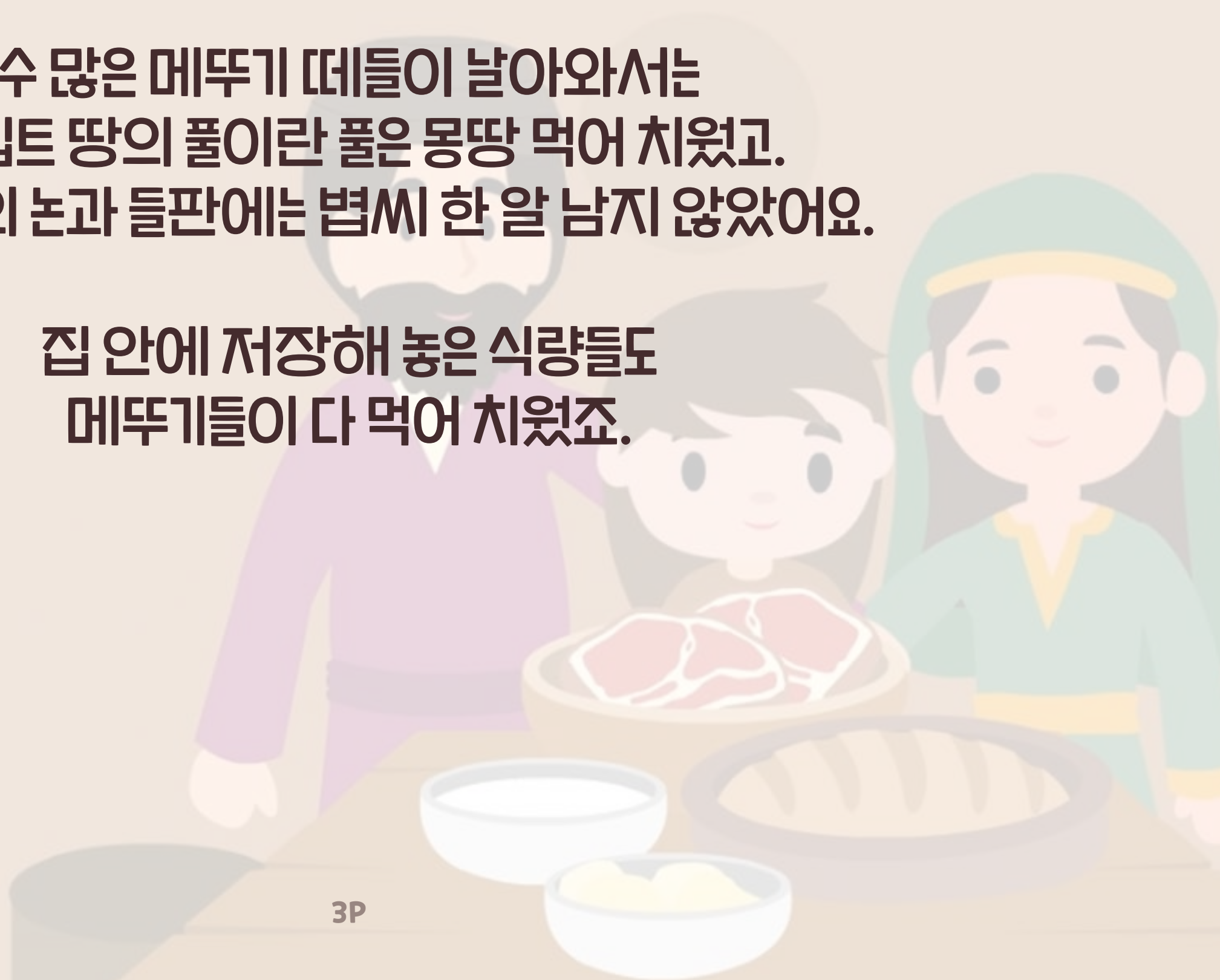
**“안 됩니다.
여자, 남자, 어린아이와 어른
우리의 양과 소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떠날 것입니다.”**

**“뭐야! 이 괴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이런 고안 놈들 같으니라고! 이이잉...”**

그리고 어김없이
여덟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엔 메뚜기였죠!

수 많은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는
이집트 땅의 풀이란 풀은 몽땅 먹어 치웠고.
이집트의 논과 들판에는 볍씨 한 알 남지 않았어요.

집 안에 저장해 놓은 식량들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웠죠.



이집트의 왕궁 안에도 메뚜기 떼들이
가득했고 마침내 파라오가 말했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에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다.
너희 말대로 해 줄 테니, 이 끔찍한
메뚜기 떼를 제발 좀 없애주거라.. 제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메뚜기 떼를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예상대로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이집트 땅에 삼 일 동안이나!
짙은 어두움이 깔린 거예요!

당시에는 전등도 없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어디로 피신할 수도 없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밝은 빛이 비칠 뿐이었죠.
깜깜한 궁전에서 파라오는 울상이 되었어요.

**“이, 이놈들이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냐?
좋다, 좋아. 니들의 백성을 데려가거라
여자와 어린아이도 다 데리고 나가거라!
다만, 너희의 양과 소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이집트에서
먹고 자란 이집트의 가축이란 말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짐승들도 갖고 가야 합니다.
그 짐승들 중에 몇 마리를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 입니다.”**

좀처럼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해 주지 않자
파라오는 자존심이 잔뜩 상했어요.

**“시끄럽다! 썩 물러가거라!
너희는 이 땅에서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두 사람, 모세와 아론!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똑똑히 알아 두거라!”**

그렇게 파라오는, 다시 한번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자, 자, 여러분, 똑바로 들으십시오.
오늘 밤 12시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벌을
이집트 땅에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린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지나치시겠지만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첫째 아들을 죽이신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였어요.
모세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린양을 불에 구워서
오늘 밤 가족끼리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늘 자정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벌을 내리시면
그때는 파라오가 우리를 정말로 보내줄 것 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각자 맡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들은 양을 잡아서 문에 발라놓았고
어머니들은 밤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도 분주하게 심부름을 했어요.

이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던 순간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매년 이날이 되면
지금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죠.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되고
모세가 전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집트의 온 도시는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파라오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들아, 아들아...내 아들이...
내 아들이 왜 이런 것이냐!
아들아 눈을 떠보거라...!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아이고...아이고...”



**가장 소중한 자녀마저 잃게 되자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은 울부짖었어요.**

**“제발 이 땅에서 떠나 주시오..
당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고..
제발...제발 떠나주시오 엉엉...”**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잃은 파라오도
결국 고집을 버릴 수 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양 떼와 소 떼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보내주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고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